

EU, 신규 가맹국 2004년도 농업소득 급증

유럽연합(EU)의 2004년도 농업소득(agricultural income) 추정치는 평균 3.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규 가맹국들의 농업소득 증가분(평균 53.8%)에 힘입은 바 크다. 이 결과는 새로운 EU 가맹국의 등장이 단일시장의 확대와 공동농업정책(CAP)의 실행을 통해 EU 농업부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15개 회원국(EU-15)의 농업소득 역시 0.8% 증가했다.

농업농촌개발집행위원(Commissioner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인 Mariann Fischer Boel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EU 회원국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EU 농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로운 회원국들의 농민들은 CAP의 이행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EU 회원국들의 실질농가소득(real farm income) 역시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섰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EU 농민들이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CAP 개혁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EU 25개국 농가소득 증가의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2003년에 비해 농작물 수확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곡류(cereal), 유지종자(oilseed), 와인(wine), 올리브유(olive oil), 감자(potato) 부문에서 큰 증가를 보였다. 특히 실질 농작물 가격은 8.4%나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농작물 생산량이 12.5% 증가하였다.

(2) 돼지와 가금류를 중심으로 실질 육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돈육 생산이 7%, 가금육은 4% 상승하였다.

(3) 새로운 EU 가맹국의 농업부문 지지를 위한 보조금 수준이 상당량 증가하였다. 국가 별로 상한(top-ups)이 설정되었지만, 2003년도 12억 유로에서 2004년도 30억 유로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유류 가격 상승, 즉 에너지, 윤활유, 비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관련한 전체 투입요소 가격상승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되기는 하였지만, 투입요소 가격 상승에 의한 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존 15개 회원국들의 농업소득 역시 2003년에 비해 0.8% 증가하면서 장기적인 증가추세로 반전하였다. 1980년 이후 기존 15개 회원국들의 농업소득(agricultural income)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48% 증가하였다(1992년 CAP 실행이후 24% 증가).

새로운 EU 가맹국들은 EU 진출로 인해 농업소득 53.8%의 증가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EU 확대 이후의 소득전망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분석에서도 예측되었던 바이다. 증가의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여건 개선으로 시장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소득 증가의 약 60%를 차지), 농가를 시장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지지가 시행(소득증가의 약 40%를 차지)되었다.

(2) EU 확대로 인해 체코 공화국과 폴란드 농업이 가장 큰 혜택을 얻었다. 특히 체코 공화국의 농업생산이 108% 증가하였고, 폴란드는 74% 증가하였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